



군종주보

2018년 9월 23일(제894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물러받아야 할 것과 기부해야 할 것들.....”

우리는 지금 순교자 성월을 보내고 있고, 특별히 오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을 기리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 성인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분들의 굳은 믿음을 새겨 봅니다. 하루의 짧은 순간순간에도 작은 일들 때문에 실망하고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보며 남은 순교자 성월만큼이라도, 아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순교성인들처럼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님께 청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순교성인들을 기념하는 오늘, 저는 성인들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문화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왜 그들은 피를 흘리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도대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하느님께서 생명의 하느님 이십니다. 그 어느 생명 하나도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들을 보면 이를 확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순교 성인들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결국 기존의 지배이념과 흔들리지 않는 권력의 토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그것에 반하거나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그 누가 됐건 죽음으로 내모는 조선시대의 모습, 그로 인해 이름 모를 우리의 선조들은 무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과 복음을 선택했던 순교자들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지만 기존의 질서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의 무자비함을 지금의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는 조선시대처럼 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사회의 여러 분야에 스며든 죽음의 문화는 가난한 이들과 약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도 순교에 이르기 전, 성인들이 품었던 마지막 물음이 아닐까요?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오늘날 예수님께서 사셨다면 과연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에 대한 물음에 머물러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서 혹여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은 없는지,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없애버리지는 않았는지,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이를 모른 채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순교자들의 믿음과 더불어 죽음의 문화까지는 물려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재경(사도요한) 신부
인천해군(해군 안병사)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지혜 3,1-9
- 회 답 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제 2 독 시** 로마 8,31ㄴ-39
-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 복 음** 루카 9,23-26
- 영 성 제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김윤덕 이기타 막달레나



성인명: 김윤덕 이기타 막달레나 (金允德 Agatha Magdalene)

신분: 부인, 순교자

활동연도: 1765?-1815년

경상도 상주의 은재(현, 경북 문경시 가운데 저음리)에서 태어난 김윤덕(金允德) 아가타 막달레나는, 장성한 뒤에 고향 인근에 전파된 복음을 전해 듣고 입교하였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노래산 교우촌(현,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2리)으로 이주하여 그곳 교우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김 아가타 막달레나는 1815년 2월 22일경, 교우들과 함께 예수 부활 대축일을 지내던 중에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되었다. 이때부터 그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 문초하던 관헌이 ‘대관절 무엇 때문에 죽으려 하느냐?’고 물으면,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아무리 비천하고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조물주이신 천주의 은혜를 몰라보고 그분을 배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증언한 김 아가타 막달레나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대구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다시 혹독한 형벌을 받던 중에 마음이 약해져 신앙을 배반하기에 이르렀다. 이내 감사는 그녀를 석방해 주도록 하였고, 그녀는 감영의 대문을 나가려던 차에 안동에서 이송되어 온 김종한 안드레아를 만나게 되었다. 이때 김 안드레아는 한숨을 내쉬면서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힘써 권면하였다. 김 안드레아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 아가타 막달레나의 신앙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다시 감영으로 들어간 그녀는 포졸들을 밀치고는 서슴없이 관장 앞으로 나아갔다. 놀란 관장이 ‘방금 나갔는데, 왜 다시 들어왔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까는 혹형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 천주를 배반하였지만, 이것은 크나큰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 관장님 앞으로 온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실한 신자입니다.”

관장은 화가 나서 내쫓게 하였다. 그러나 김윤덕 아가타 막달레나는 다시 들어와서 이전의 배교를 다시 한번 큰소리로 취소하였고, 관장은 화가 나서 심하게 매질을 하도록 하였다. 그녀의 살점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으며 얼마 되지 않아 뼈가 허영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내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옥으로 끌려갔는데, 옥에 들어가자마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때가 1815년 음력 4월 말 또는 5월 초로, 당시 그녀의 나이는 50세가량이었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한가위에

저 달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길

세상의
좋은 꿈이
다 이루어지길

베풀어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저 달에...



상화이야기

피사성당의 모자이크화



Photo by: Gaston Battistini / Flickr

피사 주교좌성당 진제 조망도

그런데 이곳 주교좌 성당 내부에는 들어가자마자 보는 이를 경탄케 하는 웅장한 모자이크화가 있으니 이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그린 그림으로, 높이가 4m에 달한다.

예수님의 표정은 근엄하시며 오른손을 들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고 계신다. 예수님의 옥좌에는 양처럼 온순한 사자가 앉아 있고, 왼편에는 성모님이 계시며 오른쪽에는 사도요한이 자신이 집필한 복음서를 들고 예수님을 보필하고 계신다.

김은혜(엘리사벳)

적지: 지미부에 외 다수(미상)
 제작 연도: 1301-02
 모자이크화 385x223cm



교 구 소 식

군중포럼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순교자 대축일: 지운대 임성호 신부

◆ 교구장 동정

- 칠성(7사단)&명월(15사단) 성당 신임신부 방문
 때: 9월 28일(금)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